

광주 노아동물메디컬센터-경북대 '상생 발전' 맞손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MOU...영·호남 수의학 교류 연구·임상실습·인재양성 본격화...수의로 질적 향상도

광주 동물의료기관인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가 경북대학교와 손잡고 수의학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대는 28일 본관 총장실에서 허영우 총장과 이기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장, 양하영 대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과 상호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는 경북대에 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에 기반을 둔 전남대 출신 동물의료기관 대표가 영남권 거점국립대인 경북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사례는 드문 경우로, 영·호남 수의학계 상생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금은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진료환경 개선과 첨단 의료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의료·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임상 현장과 대학 연구 역량을 연계한 R&BD 협력 △수의대 학생 대상 임상 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료 시스템 공유 및 협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광주지역 2차 동물병원과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수의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담은 이번 기금 기탁과 협약 체결에 감사드린다"며 "국립대와 지역



양하영 24시 노아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지난 27일 경북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과 '상호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에서 허영우 총장, 이기자 동물병원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료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자 병원장은 "임상 역량이 뛰어난

노아동물메디컬센터와의 협력은 병원의 진료와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호남 수의로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하영 대표원장은 "지역을 넘어선 교류와 협력이 수의학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 교육, 연구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더 나은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성서 장애인의 날 행사...권익증진·사회통합 의미 되새겨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전남도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복지체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남도는 28일 장성 흥길동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심우정 장성군 부군수, 장애인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성군장애인복지관 난타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장학금 기탁식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참여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대상은 20년 이상 여성 장애인 권익 향상에 힘써온 문애준 활동가가 수상했다.

문 활동가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을 비롯해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개소, 체험을 설치, 여성 장애인 카페 운영 등 지역 여성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한 장애인상은 김중진 장성군장애인복지관장, 문광욱 허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심재근 ㈜참튼건강과학 대표, 이강호 전남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사무국장 등 4명에게도 수여됐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명, 전남도지사 표창 19명, 군수 표창 6명이 각각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가 전남 난치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부대행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이동식 카페 운영, 장애인 생선품 전시, 취업 상담 등이 마련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장성 흥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일천 차기 원장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고령화된 회원 구조를 고려해 보다 젊고 활력 있는 문화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이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문화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일천 9대 원장은 조선대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양관운 AF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남·광주 남도장학회에 1억원 기탁

전남도는 양관운 AF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가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이 어려운 지역 출신 학생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전남·광주 남도장학회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 사업가이자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양관운 대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장학기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중진 남도학술원장은 "양관운 대표의 뜻깊은 결단과 따뜻한 나눔에 존경과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기탁자의 뜻을 살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이범헌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ARKO))는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의를 열고 이범헌 신한대학교 특임교수(사진)를 제9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위원장을 포함한 9기 위원회의 임기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 간이다.

아르코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9기 위원회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신임 위원 8명과 임기가 남아있는 3명의 위원(2027.7.31)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범헌 신임 위원장은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제24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울교육청 문화예술 특별보좌관, 제28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예술계 현장과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해왔다.

한편, 제9대 위원장 취임식은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아르코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환경운동연합-5·18행사위, 탄소중립 실천 일회용품 감량·다회용기 전환 업무협약 체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최근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5·18 민중항쟁기념행사 일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18민중항쟁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5·18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전야제를 비롯한 주요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 쓰레기 발생 감소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주먹밥 나눔부스 등 주요 프로그램의 일회용품 저감, 음식대 설치 및 개인컵 이용 활성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본사방문

-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
- ▲신병철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이현영 조선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장



광주 서구문화원 제9대 원장에 이일천씨(오른쪽)가 선출됐다. 사진제공=광주 서구문화원

이일천 제9대 광주 서구문화원장 선출

"다양한 프로로 주민 문화공동체 실현하겠다"

광주 서구문화원 제9대 원장에 이일천씨가 선출됐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최근 발산아트홀에서 2026년 임시총회를 갖고 제9대 원장으로 이일천씨를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

서구문화원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구성돼 임원 선출 및 검증 절차 등을 마친다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

해 준비했다. 이번 원장 선거에는 단독 후보로 이일천 후보가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됐다.

이일천 후보는 원장과 함께 이사 11명도 새롭게 뽑혔다. 채승기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증을 전달하며 선출 절차를 공식화했다. 일부 임원은 향후 서구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원장의 지명을 통해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18개 초등 학부모 440명 구성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청사 2층 소통마루에서 '2026년 광주 북부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구성된 북부녹색어머니회는 지역 18개 초등학교 학부모 440명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교통안전 유공 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6년도 임원진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청사 2층 소통마루에서 '2026년 광주 북부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